

‘연경천하’ V리그...페퍼스 박정아·이예림 올스타 도전장

올스타 팬투표 27일까지 진행...김연경, 3년 연속 최다 득표 관심 페퍼스, 이원정·장위·하혜진 후보 올라...올스타전 내년 1월 4일

‘배구여제’ 김연경이 V리그 올스타 투표에서 3년 연속 ‘최고의 별’이 될 수 있을까. 한국배구연맹(KOVO)은 오는 27일 오후 2시까지 도드람 2024-2025 V리그 올스타전 온라인 팬투표를 실시한다.

프로배구 팬들의 관심은 김연경(흥국생명)에게 쏠린다. 김연경(흥국생명)은 지난 시즌 3만9813표를 받으며 2년 연속, 통산 세 번째(2020-2021, 2022-2023, 2023-2024시즌) 남녀 최다 득표자가 됐다.

다시 한번 최다 득표에 도전하는 김연경은 아웃사이드 히터 부문에서 AI페퍼스의 박정아, 이예림 등 11명과 경쟁한다.

박정아는 지난 시즌 진행된 올스타 투표에서 2만 3350표를 획득해 V-스타팀으로 출전했다. 페퍼스에서는 박정아·이예림 외에도 이원정(S)·장위(MB)·하혜진(MB)이 올스타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올스타전 팬 투표는 남녀부 각 7명씩(아포짓 스파이커 1명·아웃사이드 히터 2명·세터 1명·미들블로커 2명·리베로 1명) 총 14명에게 표를 행사할 수 있으며 균형 있는 선발을 위해 동일 구단 선수는 최대 3명으로 제한된다.

지난 올스타전에서 직전 시즌 최종 성적을 기준으로 팀을 나눈 것과 달리 이번에는 선수 포지션별

최종 선발된 순위에 따라 자동으로 팀이 배정된다. 최종 선발된 올스타 선수들은 득표 기준에 따라 K-스타팀(아포짓 스파이커 2위, 아웃사이드 히터 1·4위, 세터 2위, 미들 블로커 1·4위, 리베로 1위)과 V-스타팀(아포짓 스파이커 1위, 아웃사이드 히터 2·3위, 세터 1위, 미들 블로커 2·3위, 리베로 2위)으로 구성된다.

투표로 선발되는 인원은 28명이며, 전문위원회 추천 12명을 포함해 총 40명의 선수들이 배구 축제를 함께한다.

이번 올스타전에서는 정규리그 2라운드 종료 기준 남자부 1위와 여자부 2위팀 감독이 K-스타팀, 남자부 2위와 여자부 1위팀 감독이 V-스타팀의 지휘봉을 잡는다.

KOVO는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정을 위해 기존의 팬 투표 비율(100%)을 70%로 낮추고 선수단 투표(15%)와 미디어 투표(15%)를 도입했다. 최종 집계 점수가 동점일 경우 팬 투표를 우선으로 한다.

팬 투표는 KOVO 홈페이지에서 참여할 수 있으며 계정당 1일 1회, 동일 구단 선수는 최대 3명까지 투표 가능하다.

이번 시즌 올스타전은 오는 2025년 1월 4일 강원 춘천 호반체육관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손흥민 “행복한 대표팀 생활...내년 3월 웃는 얼굴로 만나길” 전남, KBF바둑리그 7연승 ‘단독 선두’

2024년 국가대표팀 일정을 마무리한 한국 축구 간판 손흥민(토트넘)이 내년 3월 A매치 기간 팬들과 재회를 기약했다.

손흥민은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올 한해 행복하게 대표팀 생활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마지막 경기에서 승리하지 못해 아쉽지만, 이 마음이 대표팀을 더 배고프게 하고 성장하게 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속팀에서 좋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고 우리 대표팀은 (내년) 3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웃는 얼굴로 만날 수 있길 기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손흥민의 올해 국가대표 경력은 다사다난했다. 64년 만의 우승을 목표로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에 나섰다 요르단과 4강전에서 0-2로 완패해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뜻깊은 기록도 세웠다. 손흥민은 올해 들어서만 10골을 폭발,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 처음으로 한해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했다.

지난 19일 요르단 암만 국제경기장에서 킥오프한 팔레스타인과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 예선 B조 6차전에서는 A매치 51번째 득점도 신고했다. 이 득점으로 손흥민은 황선홍 대전하나시티즌 감독(50골)을 뛰어넘어 역대 남자 선수 가운데 A매치 최다 득점 단독 2위로 올라섰다.

올해 A매치 일정을 마무리한 손흥민은 토트넘으로 복귀해 오는 24일 맨체스터 시티와 원정 경기를 준비한다.

/연합뉴스

신현석·한유정 남녀 개인 성적 1위

전남 바둑이 2024 KBF바둑리그에서 7전 전승하며 단독선두에 올랐다.

전남은 최근 인천 중구 영종도 특별대극장에서 펼쳐진 2024 KBF바둑리그 2차 경기(5-8라운드)에서 5라운드 한국바둑고교(4-1), 6라운드 전북 부안(3-2), 7라운드 울산(5-0)전 승리를 거둔 뒤 선두경쟁을 펼치던 경기 부천도 8라운드에서 3-2로 꺾었다.

앞서 지난 10월 치러진 1차 경기에서 3연승을 했던 전남은 이번 2차 경기까지 7승 0패(개인승수 26)로 팀순위 1위를 달리고 있다.

2위 경기 부천은 5승 2패(개인승수 24), 공동 3위 부산과 부안은 각각 5승 2패(개인승수 23)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전남의 신현석과 한유정은 나란히 팀 승수와 같은 7연승을 거두며 남녀 개인성적에서도 1위로 팀의 호성적을 이끌고 있다.

신현호 감독은 “감독보다 오히려 선수들이 우승 욕심이 많은 상태다. 팀 분위기가 무척 좋다”며 “남은 경기도 마음 놓고 둘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주력해 정규리그 우승에 도전해보겠다”고 밝혔다.

기명도 전남바둑협회장은 “이 기세를 이어 3차 리그에서도 유종의 미를 거둔 후 포스트 시즌에서



도 우승을 노려보겠다”고 말했다.

2024 KBF바둑리그는 전국 11개 팀이 참가, 남자 3명과 여자 2명으로 구성된 5인 단체전으로 총 11라운드 풀리그를 치른다.

12월 7일과 8일 진행되는 마지막 3차 경기(9-11라운드)에서 최종 순위가 결정되고, 상위 5개 팀이 스텝레더 방식으로 포스트시즌 경기를 갖는다.

포스트시즌은 단판승부로 치러지며 챔피언결정전은 3번 승부를 펼치게 된다. /김진아 기자 jinggi@

체육으로 하나되는 광주...시민체육대회 개최

23~24일 빛고을체육관 등

광주시민이 체육으로 하나 되는 제36회 광주시민체육대회가 23-24일 열린다.

대회는 광주 빛고을체육관 등 4개 경기장에서 펼쳐지며 총 9개 종목에 5개 구의 동호인 735명이 참가한다.

지역 동호인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족과 시민 등 총 1500여 명이 참여해 ‘건강한 시민과 함께 빛나는 광주’를 목표로 행사를 갖는다.

23일에는 사전 경기로 검도, 야구, 축구 등 3개 종목이 진행된다.

검도는 서석중·고등학교 체육관, 야구는 북구종합운동장, 축구는 보라매축구장에서 열린다.

개회식은 24일 오전 11시에 진행되며 강기정 광주시장과 전갑수 시체육회장, 5개 구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개회식에 앞서 시 대표 줄넘기와 에어로빅 선수단의 시연 행사가 펼쳐진다.

개회식에 이어 한마음 계주, 계란 릴레이, 슈퍼볼 굴리기 계주 등 6개의 어울림 경기가 진행된다.

빛고을체육관은 내년 광주에서 열리는 2025세계양궁선수권대회 홍보를 위한 포토존과 양궁 체험 부스를 비롯해 시민체육진흥센터의 건강관리 부스, 협약병원과 한의원의 의료지원 부스가 운영된다.

한편, 이번 대회에는 광주시체육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5개 구 가족센터가 참여해 행사 의미를 더했다. 최근 시체육회는 5개 구 가족센터와의 협약식을 통해 건강한 시민사회 조성을 위해 다문화 가정, 1인 가족 등에 대한 체육활동 지원 협력을 약속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

안세영, 중국 마스터스 단식 8강 안착

배드민턴 간판 안세영(삼성생명)이 태국, 대만 선수를 연파하고 중국에서 열리는 국제대회 8강에 안착했다.

안세영(세계 랭킹 1위)은 21일 중국 선전의 선전아레나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중국 마스터스 여자 단식 16강전에서 송쉬원(24위)을 2-1(21-23 21-12 21-12)

로 격파하고 8강에 올랐다.

이날 승리를 안세영은 송쉬원에게 상대 전적 3승 무패 우위를 이어갔다.

안세영의 8강 상대는 중국의 장이만(23위)이다. 한편 이번 중국 마스터스는 안세영이 금메달을 딴 2024 파리 올림픽 이후 덴마크 오픈에 이어 두 번째로 나선 국제 대회다.

/연합뉴스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2024 광주상설공연(11월)
 일시 : 2024-11-02(토) ~ 2024-11-30(토)
 매주 토요일-일요일 오후 5시
 * 11.15(금) 오후 7시 기획공연
 (청년국악 힐링 콘서트)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8372



GAC 공모전시 조조선섬유조형회 특별전
 : 엮고 물들여 쌓은 아름다움으로 위로하다
 일시 : 2024-11-1(금) ~ 2024-12-1(일)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

